

집 안 우체국 놀이 꾸러미

4~7세 · 글자를 시험처럼 익히지 않고,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쓰기가 시작되도록 도와요.

준비물

출력물, 굵은 색연필, 풀 또는 종이테이프, 빈 상자 1개, 안전가위. 글자를 아직 쓰지 않아도 그림·선·자기만의 표시로 충분합니다.

놀이 흐름

1

편지를 만들어요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할지 이야기하고, 아이가 그리거나 표시해요. 아이가 원하면 어른이 말한 그대로 받아 적어요.

2

봉투와 우표를 꾸며요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첫 글자를 찾아보고, 우표에는 나만의 상징을 만들어요.

3

집 안 우체통에 넣어요

빈 상자에 우체통 표지를 붙이고 편지 넣는 구멍은 어른이 잘라요.

4

역할을 바꾸어 배달해요

보내는 사람·우편 담당·받는 사람 역할을 바꾸며 이름, 주소, 배달 순서를 자연스럽게 읽어요.

어른의 말걸기

“누구에게 보내고 싶어?” “그 사람이 알 수 있게 어떤 표시를 넣을까?” “이 편지는 어디로 가야 할까?” 글자를 바로 고쳐 주기보다 아이가 만든 표시의 뜻을 먼저 물어보세요.

마음을 담는 편지지

그림, 선, 글자처럼 보이는 모양도 모두 메시지요. 아이가 말하면 어른이 아래 칸에 받아 적어도 좋아요.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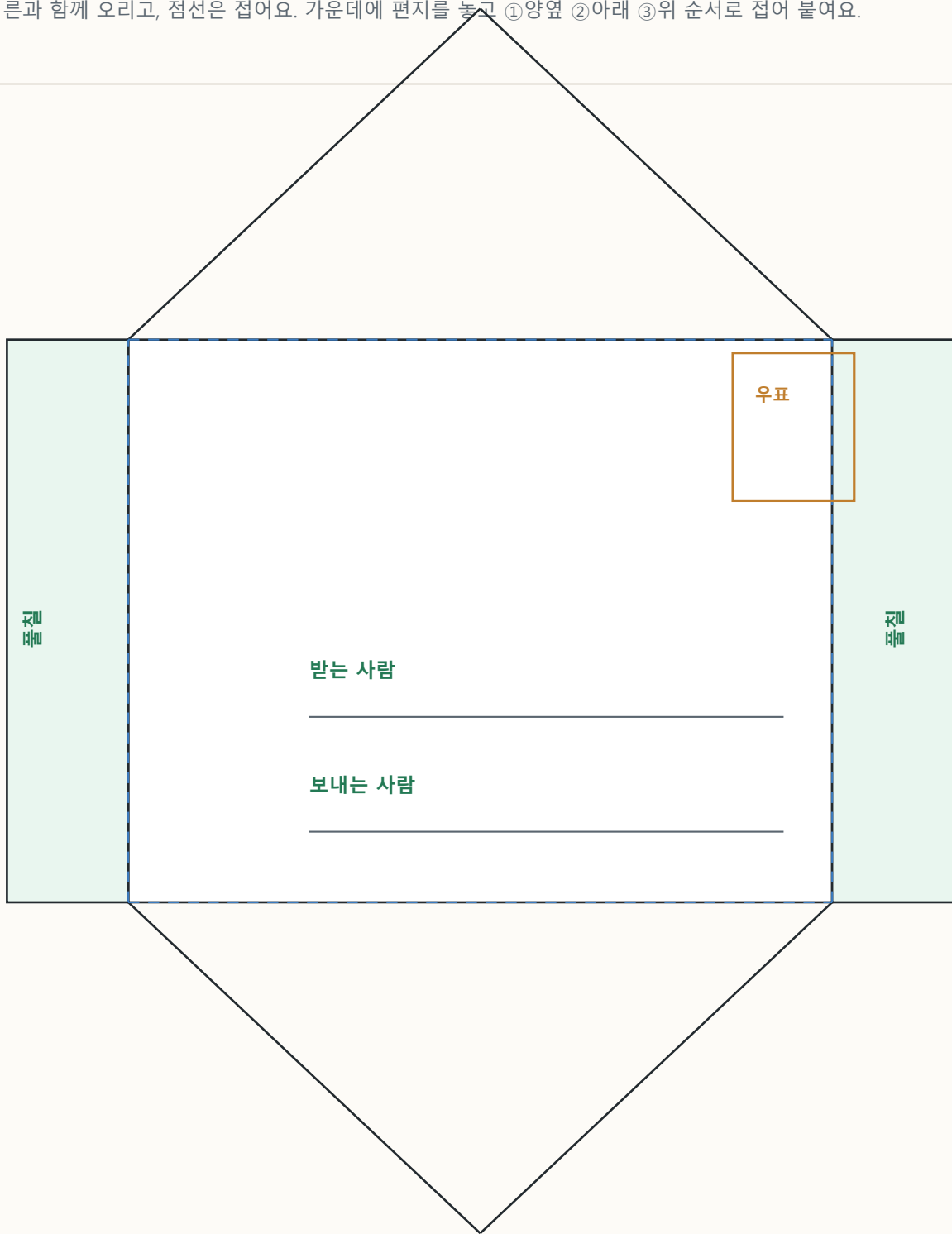
그리고 싶은 마음

내가 만든 표시·글자

어른이 받아 적은 아이의 말

한 장 봉투 도안

실선은 어른과 함께 오리고, 점선은 접어요. 가운데에 편지를 놓고 ①양옆 ②아래 ③위 순서로 접어 붙여요.



실선: 오리기

----- 점선: 접기

가위 사용과 우체통 구멍 내기는 어른이 도와주세요.

나만의 우표 만들기

그림, 무늬, 첫 글자, 좋아하는 색을 넣어 우표를 완성해요. 작은 조각은 3세 미만 동생의 손이 닿지 않게 보관해요.

자람 우편	자람 우편	자람 우편
자람 우편	자람 우편	자람 우편
자람 우편	자람 우편	자람 우편
자람 우편	자람 우편	자람 우편

참고 원천: NAEYC 극놀이 속 문해 지원·가정의 쓰기 지원, 자람 자체제작 · 검토일 2026-07

가정·교육 현장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인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 안 우체통 만들기

빈 상자에 표지를 붙이고 가족이 정한 곳에 놓아요. 칼로 편지 구멍을 내는 일은 반드시 어른이 합니다.

우리 집 우체통



편지 넣는 곳

우체통 이름

배달하는 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만드는 순서

- ☐ 빈 상자의 뚜껑이 잘 닫히는지 확인하고, 위 표지를 오려 앞면에 붙여요.
- ☐ 어른이 편지 구멍의 위치를 정하고 칼로 잘라요. 날카로운 가장자리는 테이프로 덮어요.
- ☐ 아이와 배달 요일·우체통 이름·담당 역할을 정해요.
- ☐ 받는 사람 이름을 보고 편지를 나누고, 잘못 배달했을 때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이야기해요.

안전: 칼·가위는 어른이 다루고, 끈을 목에 걸거나 상자를 머리에 쓰지 않아요.

오늘의 우편 배달 기록

이름과 표시를 단서로 편지를 찾아 배달해요. 틀린 글자를 검사하는 표가 아니라, 글자가 하는 일을 발견하는 기록이에요.

날짜 _____ 오늘의 우편 담당 _____

편지 번호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름을 찾은 단서	배달
1				☐ 완료
2				☐ 완료
3				☐ 완료
4				☐ 완료
5				☐ 완료
6				☐ 완료
7				☐ 완료

배달하며 발견한 글자·표시

다음에는 누구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고 싶나요? _____